

# 라오스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1
VI . 종합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라 오 스

### I. 일반개황

면적	236.8천 Km <sup>2</sup>	G D P	52억 달러(2008년)
인구	6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868달러(2008년)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통화단위	Kip(K)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8,761(2008년)

-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868달러, 인구 600만의 전통적 저소득 농업국임.
- 1975년 라오스혁명당에 의해 라오스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서방제국 및 세계은행의 양허성차관 등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제성장률	6.9	7.3	8.3	7.5	7.5
재정수지 / GDP	-3.4	-3.4	-3.8	-2.8	-2.9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7.2	6.8	4.5	8.6

자료 : IFS, EIU

#### □ 광물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8년 7.5%의 경제성장률 전망

- 광물 수출과 인프라 건설 호조에 힘입어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성장에 따라 2007년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5% 성장한 1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서비스업도 7.2%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2008년에도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금 등 광업분야의 수출 호조와 도로, 다리, 전력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 성장,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에는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각각 36.3%, 18%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하락한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식료품 가격,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식료품 가격, 유가 상승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 증가로 인한 건설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를 기록하였음.
- \* 2008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년만의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및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낮아진 4.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규모 3% 내외 지속

- 재정수지는 세수 기반 부족, 높은 외채 이자 부담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중임. 2004년 이래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 세율 인상 등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하지만 라오스 정부가 관료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류보조금 부담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정부 관료들의 임금을 20% 인상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산업 및 교역국가의 편중, 외부요인의 영향이 큰 경제 구조

- 최근 의류와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아직 농림수산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에 따라 자연 재해와 같은 외부요인에 쉽게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임.
- 또한 수출의 약 67%,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 나. 성장 잠재력

### □ 산림자원 및 수자원, 광물자원 풍부

-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약 4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임. 또한 태국,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 메콩강이 존재해 수자원이 풍부해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주석, 납,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해 총 수출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원이 되고 있음.

### □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

- 관광산업은 라오스의 주요 외화획득원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약 1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라오스를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을 기록하였음.
- 2010년까지 연간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은 2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관광객은 비엔탄, 참파삭, 루앙프라방 등의 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다양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 10월에는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3국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정책 성과

### □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 라오스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미국으로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작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6년 말 국회의 부가가치세제 도입 안이 통과되면서,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지적재산권, 관세 등 교역 관련 법을 WTO의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09년 말까지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2009년 12월 열릴 동남아시아게임(Southeast Asian Game)을 유치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통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외국인 투자를 더욱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2006년 11월 개최된 라오스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UN과 36개의 라오스 원조국 및 22개의 원조기구 대표들은 라오스 정부의 제6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2011년까지 UN은 1.9억 달러, ADB는 2억 달러의 원조를 지원할 것으로 약속하였음.
- 현 정부의 경제개발 노력에 따른 경제개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 안정과 성장잠재력을 장점으로 내세워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음.

### 3. 대외 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 상 수 지	-192.5	49.6	107.3	-52
경 상 수 지 / GDP	-6.7	1.4	2.6	-1.0
상 품 수 지	-379	-235	-145	-226
수 출	475	810	922	1,161
수 입	854	1,045	1,067	1,387
외 환 보 유 액	234	328	533	796
총 외 채 잔 액	2,690	2,985	2,998	n.a.
총 외 채 잔 액 / GDP	100.8	91.2	82.0	73.3
D . S . R .	20.6	17.1	19.6	18.2

자료 : IFS, EIU

#### □ 상품수지 적자 확대

-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과 베트남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구리, 금 등의 광물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목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8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음.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도 수출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들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한 건설자재, 기계장비와 연료 수입액 증가로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앞질러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 추세

-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 원조에 힘입어 2007년에는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8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그 규모는 GDP의 약 1%로 추정되지만, 이는 2005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7%를 기록했던 것에 비교해 상당수준 개선된 수치임.

####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노동자들의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해외원조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8년 말에는 수입의 약 5개월분 수준인 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라오인민혁명당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체제국으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 지난 2006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71명의 초선의원과 44명의 재선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LPRP 소속이고, 2006년 6월 선거에서 촘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부아손 부파반 총리가 당선되는 등 지배체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통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
- LPRP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촘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부아손 부파반 총리는 온건한 개혁으로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약속하면서 내부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정치적 부정부패에 대해 강경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원인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자 2007년 7월, 부아손 총리의 제안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면서도 일당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국외이주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나 반정부 시위는 비교적 약한 편임.

## 2. 사회동향

### □ 태국 거주 몽(Hmong)족 강제송환 위기

-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몽족 8,000여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 있음.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몽족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음.
- 그동안 몽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라오스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이들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으며, 2007년 9월, 태국 거주 몽족을 모두 라오스로 송환하기로 태국과 합의하였음. 본 합의에 따라 2009년 1월 양국은 이 중 5,000여명을 6월까지 송환하기로 함.
- Human Right Watch,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NUHCR),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의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은 양국의 몽족 강제송환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음. 이들 단체는 몽족이 라오스 정권의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것이므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과 고문으로 인권이 유린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함.
-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라오스 정부를 지지, 베트남 전을 수행 중인 미국을 지원했으나 1975년 라오스 정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자 탄압을 두려워해 태국으로 탈출해 태국 북부지방의 펜차나분 캠프에 집단 거주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인접한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깊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음. 2005년까지 베트남이 제1의 투자국이었으나, 이후 태국과 중국의 투자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임.

- 태국과는 정치적으로 몽족의 강제송환 문제 등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나, 경제적 유대관계는 깊은 편으로 태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라오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국가들, 특히 ASEAN과의 협력관계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 상환 태도

###### □ 외채상환능력이 낮은 편임

-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이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공산권으로부터의 지원 비중이 컸으나 현재는 일본, 호주,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원조가 대부분임.
- 2003년 8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무상원조 6.7억 달러, 담보대출 4.9억 달러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은 바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2007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GDP의 82% 규모로, 이는 2005년 말의 100.9%에 비해서는 낮아진 편이나, 아직도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부족한 편임.
- 중장기 양허성 차관 의존도가 크며, 차관의 약 50%는 다자간 기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국간 원조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에도 원조자금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인 경제발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현황

- 동국은 S&P, Moody's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OECD : 7(2005. 4) → 7(2006. 4) → 7(2007. 3) → 7(2008. 4)
- Euromoney : 146/185(2007. 3) → 158/185(2008. 3) → 166/186(2008. 9)
- I. I. : 134/174(2007. 9) → 142/174(2008. 3) → 140/177(2008. 9)

##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교역 및 투자규모 확대 추세

-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 기지로 부상하면서 최근 들어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대 라오스 수출입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수출 5,319만 달러, 수입 5,297만 달러로 이는 2006년에 비해 각각 127.9%, 198.2% 증가한 수치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주로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판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목재류, 의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라오스에 대한 직접투자도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라오스의 4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2008년 12월 현재 47건, 약 1억 1,024만 달러를 기록중임.

(단위: 천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주요 품목
수 출	23,328	55,653	53,187	자동차,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수 입	17,760	70,335	52,965	목재류, 의류, 기타섬유제품 등

## VII. 종합 의견

- 최근 5년 동안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산업부문은 광물 수출과 인프라 건설 호조에 힘입어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하락한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체제 국으로 라오인민혁명당은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치 분야에서도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
- 라오스는 소비재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해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넘어서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호조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이지만,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GDP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로 대외거래부문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